

# 정부기술료에 대한 기업규모별 기업선호도 실증분석

## The Empirical Study on the Degree of firms' preference for public royalty system in S. Korea

양 동 우  
호서대학교 교수

Yang, Dong-woo  
Hoseo Univ. professor

### 요약

본 연구는 전 세계에서 한국 및 이스라엘에만 있는 정부R&D지원제도상의 정부기술료(public royalty system)에 대한 기업규모별 선호도등에 관한 실증분석연구이다. 실무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출연정율제를 선호하고 작을수록 매출정율제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고 정부기술료제도에 대한 기업의 저항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I. 정부기술료개요

### 1. 연구필요성

현재까지 정부기술료에 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박정희(2009), 송충한, 김해도(2008), 이동규(2007), 조기현(2004)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정책연구로써 현행 정부R&D지원제도의 이론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거시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기술료제도의 이해관계자인 기업들의 반응 및 선호도 관련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는 정부기술료제도에 있어 기업규모별, 각 부처별 정부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 2. 정부기술료의 정의 및 유형

일반적으로 (민간)기술료는 어떤 기술에 대한 권리가 계약형식으로 권리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양허될 때,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때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권리의 사용범위나 정도에 따라 정기적인 지급형태로 사용에 의해 지불되는 금액을 말한다(서상혁 외, 2005). 반면 정부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지원으로 획득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이용하는 자가 그 국가에 반대급부로서 지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대가를 말한다. (송충한(2005), 조기현(2004),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정부기술료유형은 크게 지식경제부형과 교육인적자원부형이 있다. 먼저 지경부형은 '성공'평가과제 결과통보 후 30일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되, 기술료 징수(납부)율은 정부출연금의 40%이고, 실시계약체결일부 5년내 1

년 단위로 균등 징수하고 교과부형은 당사자간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이상을 기준으로 기술실시계약체결일 또는 매출발생시점부터 5년내에 기술료를 징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정부기술료유형은 출연정율제와 매출정율제로도 구분할 수 있다. 출연정율제는 지원금액의 일정 부분을 기술료로 징수하는 제도이고 매출정율제는 지원기술로 인한 제품내지 서비스의 매출액에 일정 부분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별로 각종 정부기술료유형에 대한 선호도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 II. 조사분석

### 1. 표본기업

본 연구의 표본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10년 9월에 설문지 배포하여 회수된 217개를 표본기업으로 하였다. 아래표는 표본기업의 구성과 정부기술료에 대한 선호도이다.

	빈도	퍼센트
대기업	56	25.8
중견기업	33	15.2
중소기업	128	59.0
합계	2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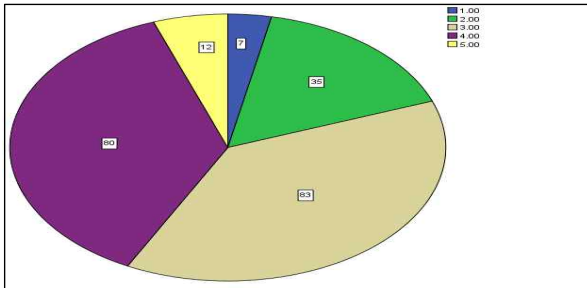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등이다.

### 3.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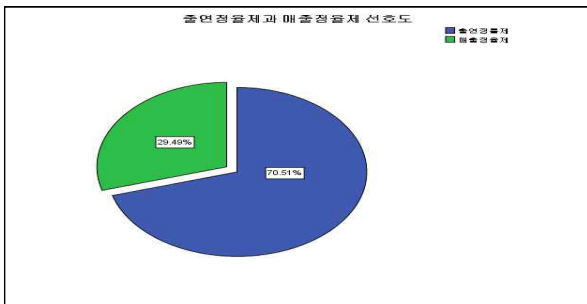
첫째 정부기술료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정부기술료에 대해서는 실무에서는 기업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정부기술료가 R&D의 선순환, R&D의 모랄헤저드를 예방키 위해 정부기술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업들을 이를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평균	편차
1:매우 반대	7	3.2	대기업	3.2500	.85812
2:반대	35	16.1			
3:보통	83	38.2	중견기업	3.3030	.98377
4:찬성	80	36.9	중소기업	3.2422	.91140
5:매우 찬성	12	5.5	합계	3.2535	.90538
합계	217	100.0			



다음으로 정부기술료에 대한 선호도를 기업규모별로 유의적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였다. 기업규모별로 one-way ANOVA를 한 결과 유의수준 0.05하에서 F값이 0.059로 나타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연정률제와 매출정률제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출연정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규모별로 one-way ANOVA를 한 결과, 유의수준 0.05하에서 F값이 2.03으로 나타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출연정률제를 선호하고 작을수록 매출정률제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교과부형 적정성의 기업 의견 평균은 2.54, 최빈값은 2로 나타나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고 기업규모별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중소기업	2.6071	.82415	.904	.406
중견기업	2.3636	.69903		
대기업	2.5547	.89450		
합계	2.5392	.84961		

넷째 지경부형 적정성의 기업 의견 평균은 2.92, 최빈값은 2로 나타나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업규모별로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중소기업	2.8750	.89570	1.685	.188
중견기업	2.6667	.98953		
대기업	3.0156	1.04982		
합계	2.9263	1.00651		

끝으로 교과부형과 지경부형의 적정성에 대한 기업 의견의 유의적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경부형이 좀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교과부형	2.5392	.84961	18.742	0.000
지경부형	2.9263	1.00651		
합계	2.7327	.95026		

### 4.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정부기술료제도에 대해 기업들은 준조세로 생각하기 보다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나름 정부기술료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경부형이 교과부형보다는 좀 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 정부기술료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지경부형을 기본으로 하여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부기술료징수시점, 기술료의 적정비율, 감면제도에 관한 기업규모별 유의성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참고 문헌 ■

- [1] Crama, P.a , De Reyck, B.b , Degraeve, Z.c "Milestone payments or royalties? Contract design for R&D licensing", Operations Research, Vol. 56, No. 6 ,
- [2] Nisvan Erkal, "Optimal Licensing Policy in Differentiated Industries", THE ECONOMIC RECORD, VOL. 81, NO. 252
- [3] 김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관리에 관한 연구", 충남대, 박사논문